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소세키(漱石)와 루쉰(魯迅)의  
작품비교

-『도련님(坊っちゃん)』과 『阿Q正伝』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殷悅

2018年 12月

# 소세키(漱石)와 루쉰(魯迅)의 작품비교

-『도련님(坊っちゃん)』과 『阿Q正伝』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鸞 姬  
殷 悦

이 論文을 日語日文学 碩士学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殷悦의 文学 碩士学位 論文을 確認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국문초록>

소세키(漱石)와 루쉰(魯迅)의 작품비교  
-『도련님(坊っちゃん)』과 『阿Q正伝』을 중심으로-

은열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김난희

본 논문은 소세키의 『도련님』과 루쉰의 『아Q정전』을 어떠한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작품 비교분석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두 작가의 경력과 문학입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세키와 루쉰은 유학을 다녀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세키는 근대 산업도시 런던을 체험하고 루쉰은 동양의 서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도쿄를 체험했다.

『도련님』과 『아Q정전』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주인공의 호칭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정확한 이름이 아니다. 이 또한 유사점이 있어서 다루게 되었다. 두 작품은 이처럼 공통점과 함께 다른 점도 보이는데, 이는 두 작가가 처한 국가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으며 민족성 등 여러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도련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도 보고, 비난도 받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지만 담백하다. 소세키는 이러한 도련님의 품성에 대해 향수를 느끼고 있다.

루쉰은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계몽성을 작품 속에 담았다. 소세키와 루쉰은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한 사실주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세키와 루쉰에 대한 높은 평가는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탁월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본고는 두 작가의 글쓰기의 태도와 작품의 문체, 플롯, 주제, 인물의 성격 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두 작품 모두 문체에서 해학과 풍자가 두드러졌고, 플롯의 경우는 플로로그, 기승전결, 에필로그 형식을 취하

고 있다. 두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도련님』은 의리형과 기회주의형, 『아Q정전』은 노동자 유형과 부패관료 유형으로 분류했다.

작품 안에는 여러 모티프가 들어있는데, 여성관, 직업관, 신체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두 작가의 비관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세기의 경우 서구문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메이지시대에 대한 문명비판을, 루쉰의 경우는 청조 말기의 중국 관료의 부패상과 함께 중국인의 무지몽매를 일깨우고자 하는 계몽을 그려냈다고 보았다.

# 목 차

## 국문초록

1. 서론 .....	1
2. 국민작가 소세키와 루쉰 .....	3
2.1 소세키의 삶과 문학입문 .....	3
2.2 루쉰의 삶과 문학입문 .....	6
3. 『도련님』과 『아Q정전』의 비교 분석 .....	10
3.1 문체의 특징 : 풍자 · 아이러니 · 해학 .....	10
3.2 작품의 구성과 플롯 .....	17
3.3 등장인물의 유형 .....	21
3.4 작품의 모티프 비교 : 여성관 · 직업관 · 신체담론 .....	33
4. 결론 .....	39
참고문헌 .....	41
ABSTRACT .....	44

## 1. 서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후 소세키)와 루쉰(魯迅:1881-1936)은 근대 일본과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국민작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사상가이자 문학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루쉰이 일본에 체류한 시기(1902.2-1909.6)는 소세키가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소세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루쉰은 『나는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sup>1)</sup>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러시아 작가 고골리(Nikolai Vasilievich Gogol-Anovskii)<sup>2)</sup>와 폴란드 작가 헨리크 센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sup>3)</sup>이다. 일본 작가로는 나쓰메 소세키와 모리 오가이를 좋아한다.”<sup>4)</sup>라고 말한다. 루쉰은 일본유학 시기에 다른 일본 문학작품은 그다지 읽지 않았지만 소세키의 작품은 거의 사서 읽었다고 전해진다.<sup>5)</sup> 루쉰의 만년에 해당하는 1936년에 『소세키전집(漱石全集)』(岩波版)이 발행되었다. 루쉰은 상하이 내산(內山)서점을 통해서 이 전집을 샀는데, 죽기 열흘 전에도 소세키의 책을 구입했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루쉰은 소세키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 고찰하는 것은 문학상의 영향관계라는 점에서도 비교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은 명성이 높은 작가인 만큼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작품에 대한 단편적 고찰이 대부분이며 특정 작품을 선정해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중국 지린대학교(吉林大学)에서 『루쉰과 나쓰메 소세키』(손방원, 지린대학교출판, 2012)라는 박사논문<sup>6)</sup>이 한 편 나왔다. 이 논문은 작가론과 작품론을 병행하고 있으며, 루쉰과 소세키의 인생관, 세계관, 문학관등 다방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논문이다.

1)루쉰(1934) 『南腔北調集·我怎么做起小説来』 人民文学出版社, pp.525-530.

2)고골리(Nikolai Vasilievich Gogol-Anovskii) (1809년~1852년):러시아의 작가·극작가. 러시아 리얼리즘의 시조. 대표작품은 『죽은 혼(Mértovye dushi)』(1842)이 있다.

3)헨리크 센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1846~1916):폴란드의 소설가. 대표 작품은 장편소설 『헛되이(Na marne)』(1872)가 있다.

4)루쉰(1934) 前掲書, p.525.

5)杜云南·熊沛軍 (2016) 『魯迅与夏目漱石的理解』 湖南文理学院, p.9.

6)孫放遠(2012)『魯迅与夏目漱石』, 吉林大学出版.

이 논문의 작품 비교는 루쉰의 『야초(野草)』와 소세키의 『열흘 밤의 꿈(夢十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두 작품에 나타난 노자(老子)사상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작가 비교로는 소세키와 루쉰의 근대문화수용에 대한 의식을 비교한 전수진의 논문이 있다.<sup>7)</sup>

본 논문은 소세키의 『도련님』과 루쉰의 『아Q정전』을 텍스트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제목 등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근대와 전근대의 과도기라는 시대배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양태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은 작가의 글쓰기의 태도와 작품의 문체, 플롯, 모티프, 인물의 성격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나쓰메 소세키의 『坊っちゃん』(岩波文庫, 1992),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번역한 루쉰의 『阿Q正伝·狂人日記, 他十二篇 (呐喊)』(岩波文庫, 1992)을 사용했으며 번역본<sup>8)</sup>을 참조했다.

---

7) 전수진·이경규(2017)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노신(魯迅)의 근대문화 수용에 대한 의식 비교」 『일본근대문학연구』 5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199-211.

8) 나쓰메 소세키 지음·송태욱 옮김(2016) 『도련님』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2) 현암사  
루쉰 지음·북트랜스 옮김(2015) 『아Q정전』 더난콘텐츠그룹 북로드  
林少華 訳(2013) 『哥儿(坊っちゃん)』 中国宇航出版社  
魯迅(2005) 『阿Q正伝』 魯迅全集 第一卷 人民文学出版社

## 2. 국민작가 소세키와 루쉰

### 2.1 소세키의 삶과 문학입문

소세키는 1867년 2월 9일(음력1월5일)에 에도의 우시고메(牛込)<sup>9)</sup>에서, 나쓰메 고타에나오카쓰(夏目小兵衛直克)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가 노년인데 늦둥이로 태어났으므로, 반갑지 않은 자식이었다. 게다가 태어난 날이 경신일(庚申日)인 것도 좋지 않았다. 이날 태어난 아이는 큰 도둑이 된다는 미신이 있었으므로, 액을 막는 의미에서 긴(金)이라는 글자가 이름에 들어갔다.

당시는 에도 막부가 붕괴된 이후의 혼란기로, 생가는 몰락하고 있었으므로 양자로 보내지는데 두 번에 걸쳐 양자로 가게 된다. 첫 번째는 요쓰야(四谷)의 고물상에 양자로 보내졌다. 늦은 밤까지 물건들과 섞여 울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누나가 불쌍히 여겨서 본가로 데리고 왔다. 이후 다시 부친의 친구였던 시오바라 쇼노스케(塩原昌之助)의 양자로 보내진다. 그러나 양부모의 불화가 불거지면서 7세 때 양모와 함께 잠깐 생가로 되돌아왔다. 이후 양부모는 이혼하게 되고 9세 때 생가로 되돌아오지만, 친부와 양부의 대립으로 나쓰메 집안으로 복적된 것은 21세 때의 일이다. 이러한 유년기의 불행한 체험은 깊은 상처가 되었으며 나중에 창작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 도쿄고등사범학교와 제5고등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1900년에 영국에 유학, 1903년에 귀국하여 제1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1905)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1906)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선다. 1907년에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하여 『우미인초(虞美人草)』를 연재하고 『도련님(坊っちゃん)』(1906), 『풀베개(草枕)』(1906) 등을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는다.

소세키가 영국 유학을 가게 된 것은 1900년(페이지33)이다. 1회 관비 유학생의 신분으로 독일 기선 프로이센호를 타고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런던에 도착한 소세키는 산업사회 런던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북

9) 지금의 도쿄 신주쿠(新宿)의 지명.

잡한 도로교통망과 산업도시의 어두운 뒷모습이었다. 매연을 뿜는 공장을 보며 소세키는 문명이란 좋기만 한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또 런던의 높은 물가는 고국에서 보내주는 유학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소세키는 다른 일본인들과 교류하지 않고 고독 속에서 영문학을 포함한 문학일반에 대해서 근원에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런던에서의 생활은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이어지고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된다. 일본과 영국의 문화적 풍토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체구에서 느껴지는 열등감 등도 이러한 불안을 더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런던대학에는 현대영문학 강좌는 없었고 오직 중세 영문학 강좌만 개설되어 있어 있었다. 런던대학의 중세문학 권위자였던 케어(Ker) 교수<sup>10)</sup>에게 잠시 강의를 들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대학 강의를 듣지 않고 영문학 교수에게 개인교습을 받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크레이그(Craig) 라는 셰익스피어 연구자였다. 그래서 소세키의 초기작품에는 영국 중세문학을 소재로 한 것이 많으며 셰익스피어에 대한 언급도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유학 후반기에는 크레이그 교수에게도 가지 않고 하숙방에서 혼자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몰입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문학론(文学論)』이다.

소세키는 원래 영문학과 한문학 모두 문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영문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1986년 「문학론」 서문을 비롯하여 여러 글에서 기술하고 있다.

나는 어릴 때 좋아서 중국 고전을 배웠다. 이것을 배운 시기는 짧았음에도 문학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정의를 막연히 「좌국사한」에서 터득했다. 혼자서 생각하기를 영문학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라면 일생을 걸어 이것을 배워도 필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余は少時好んで漢籍を学びたり。之を学ぶこと短きにも関わらず、文学は斯くの如き者なりとの定義を漠然と冥々裏に左国史漢より得たり。ひそかに思うに英文学も亦かくの如き者なるべし、斯の如きものならば生涯を挙げて之を学ぶも、あながちに悔ゆることなかるべしと。11)

10) 케어 교수 (Ker, William Paton, 1855-1902)는 영국의 문예 비평가이다. 중세 연구의 권위자로 1889년부터 1922년까지 런던대학교에서 영문학을 담당하였다. 1920년부터 23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 시학교수를 역임하였다.

11) 磯田光一編(1986) 「文学論」序 『漱石文芸論集』 岩波書店、p.13.

원래 나는 한학을 좋아해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중국 고전을 많이 읽었다. 지금은 영문학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싫어서 보는 것도 싫었다. 「낙제」(1906년)

元來僕は漢学が好きで随分興味を有って漢籍を沢山読んだのである。今は英文学などをやっているが、その頃は英語と来たら大嫌いで手に取るのも厭な様な気がした。「落第」<sup>12)</sup>(1906年)

나도 십오륙세 무렵에는 한서와 소설을 읽으며 문학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느껴, 나도 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이를 돌아가신<sup>13)</sup> 형에게 말했더니 형은 문학은 직업이 될 수 없어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말하며 오히려 나를 꾸짖었다.

「처녀작추회담」(1908년)

私も十五六歳の頃は、漢書や小説などを読んで、文学というものを面白く感じ、自分もやって見ようという気がしたので、それを亡くなった兄に話して見ると、兄は文学は職業にゃならない、アコンプリッシメントに過ぎないものだと言って、寧ろ私を叱った。

「処女作追懐談」<sup>14)</sup>(1908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소세키는 좌국사한(左国史漢)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한 문학 위에서 문학의 본질을 생각했다. 그러나 서양의 문학은 동양과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된다. 동양의 문학은 한문학의 토대 위에 성립되어 있어서 서양의 문학과는 이질적이다. 소세키는 한문학과 영문학의 비교를 통해 문학적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오랜 고뇌 끝에 얻은 결론은 한문학과 영문학 사이에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다는 것이며, 영문학이 한문학보다 낫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것은 곧 서양화이다. 소세키는 이에 저항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하에 ‘자기분위’라는 입장을 내 놓게 된다. 소세키는 이처럼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발생과 발전으로 봄으로써 당시의 지식인들과는 차별화되는 문명인식을 한 선각적인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12) 夏目漱石(1972) 『夏目漱石全集』 10 筑摩全集類聚版 筑摩書房

13) 지금은 죽었지만 죽기 전에 형에게 한 말이다.

14) 夏目漱石(1972) 前掲書

## 2.2 루쉰의 삶과 문학입문

루쉰(魯迅)은 1881년 9월 25일 저장(浙江省)성 사오싱(紹興)시 출생했으며 본명은 저우수린(周樹人)이다. 어릴 때 이름은 장서우(樟壽)였고 루쉰은 그의 필명이다. 그는 비교적 유복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할아버지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하옥(下獄)되고, 아버지는 병약하여 늘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루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방의(漢方医)를 찾아다니며 약재를 구해 병구완을 하였지만 낫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재산만 탕진하고 병사(病死)한다. 루쉰의 집안은 계속된 불행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루쉰은 중국의 전통적 의학을 불신했으며 서양의 근대적 의학을 수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sup>15)</sup>

1898년 그는 난징의 강남수사학당(江南水師學堂)에 입학하였고, 이후 광무철로학당(礦務鐵路學堂)<sup>16)</sup>에서 공부하며 당시의 계몽적 신학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02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고분학원(弘文學院)을 거쳐 1904년 센다이 의학전문학교(仙台醫學專門學校)에 입학하였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우연히 슬라이드를 보게 되었는데 러일전쟁 중 일본군이 중국 혁명당원의 목을 치는 장면이었다. 중국인이 참수당하는 모습을 다른 중국인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구경하며 웃는 모습이였다. 루쉰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크게 각성한다. 이처럼 나태하고 우매한 중국 국민을 고치지 않고서는 중국의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루쉰은 의학공부를 중단하고 글쓰기를 통해 국민성 개조를 하고자 문학을 지향하였다. 그 무렵 유럽의 피압박민(被壓迫民族)족인 폴란드의 작가 시엔키에비치와 고골리 등 슬라브계 작가의 작품에 공감한다.

루쉰은 동생 저우쥘린(周樹人)과 『외국 소설집(域外小說集)』을 공역하는 한편, 망명 중인 장병린(章炳麟)<sup>17)</sup>에게 사사하였다. 1918년 첫 작품 『광인일기(狂人日

15) 루쉰 지음·김시준 옮김(2008) 『루쉰소설전집』 을유세계문학전집 12, 을유문화사, pp.9-17.

16) 광무철로학당(礦務鐵路學堂): 1898년 광물을 채굴한 기사가 배양하기 위해서 광물 철로 학당 건립되었다.

17) 장병린(章炳麟:1868~1936)은 중국 청말 민국초기(民國初期)의 학자이자 혁명가이다. 저장성 여항현(余杭縣) 출신이다. 자는 매숙(枚叔). 호는 태염(太炎)이다.

記』를 루쉰이라는 필명으로 『신청년(新靑年)』에 발표하였고, 1921년에 『아Q정전(阿Q正傳)』을 파인(巴人)이란 이름으로 『신보부간(新報副刊)』에 연재하였다.<sup>18)</sup>

루쉰은 위의 슬라이드 사건을 계기로 민족탄압을 당하게 되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열악함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지닌 정신적 우매함, 나태함, 자기기만과 나약함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2학년을 마치기 전에 루쉰은 도쿄로 나와 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육체의 병보다 정신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문예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 도쿄 유학생들은 대부분 법학·정치학·물리학·화학·경찰학·공학 등을 공부했으며, 문학이나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몇 사람의 동지들이 잡지를 내기로 상의하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신생(新生)』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글쓰기와 자본금을 맡은 동료들이 숨어버려서 잡지 발행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위의 내용은 루쉰이 스스로 쓴 ‘자서(自序)’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후 루쉰은 적막감에 휩싸인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적막을 이기려고 루쉰은 집에 틀어박혀 비석의 글씨를 베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을 본 지인 진신이(金心異)가 글을 써보라고 권유한다. 진신이는 『신청년(新靑年)』이라는 잡지를 출판하고 있었다. 다음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대목이다.

“자네 이런 것들을 베껴서 무엇에 쓰려고 하나?” 어느 날 밤, 내가 베끼고 있는 비석의 사본을 뒤적이며 의아한 듯이 물었다. “아무데도 쓸 데 없네.” “그렇다면 자네는 무슨 생각으로 그걸 베끼는 건가?” “아무 생각도 없네.” “내 생각인데 말야, 자네 글을 좀 썼으면 해……”

나는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출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아무도 찬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적막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령 말이야, 쇠로 된 방이 있다고 해. 창문은 하나도 없어. 절대 부술 수도 없어. 안에는 깊이 잠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 곧 질식사할 거야. 하지만 혼수상태에서 죽어가는 거라서 죽음의 비애는 느끼지 못해. 지금 큰 소리를 내서, 아직 약간의 의식이 있는 몇몇을 일으켰다고 하자. 이 불행한 소수에게 어차피 살아날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그래도 몇몇이 깨

18)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편(1987)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11 동아출판사. p.12.

어 일어난다면 그 쇠로 된 방을 부술 희망이 절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걸세”)

《きみは、こんなものを写して、何の役に立つのかね?》ある夜、私のやっている古碑の写本をめくりながら、かれはさも不審そうに訊ねた。

《何の役にも立たんさ》

《じゃ、何のつもりで写すんだ?》《何のつもりもない》

《どうだい、文章でも書いて……》

かれの言う意味が私にはわかった。かれらは「新青年」という雑誌を出している。ところが、そのころは誰もまだ賛成してくれないし、といて反対するものもないようだった。かれらは寂寞におちいった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た。だが言ってやった。

《かりにだね、鉄の部屋があるとすよ。窓はひとつもないし、壊すことも絶対にできんのだ。なかには熟睡している人間がおおぜいいる。まもなく窒息死してしまうだろう。だが昏睡状態で死へ移行するのだから、死の悲哀は感じないんだ。いま、大声を出して、まだ多少意識のある数人を起こしたとすると、この不幸な少数のものに、どうせ助かりっこない臨終の苦しみを与えることになるが、それでも気の毒と思わんかね》

《しかし、数人が起きたとすれば、その鉄の部屋をこわす希望が、絶対にないとは言えんじやないか》 19)

위에 인용된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루쉰은 글쓰기를 통해 소수의 중국인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게 할 사명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잡지 『신청년』은 1915년 상하이에서 발족하여 1916년에는 베이징에서 재개되는데 위의 대화는 베이징에서의 일이다. 루쉰은 자국민의 무지몽매를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사명으로 보고 있다. 무지몽매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루쉰은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해 문학을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한다. 문학을 통해 우매함을 깨우치고 자기기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루쉰은 먼저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약소국의 문학을 읽으며 문학 창작의 기반을 닦기 시작한다. 그 방편으로 온갖 종류의 서적을 사들여 독서에 열중한다. 구입하는 서적의 대부분은 문학위주였지만 철학서와 역사관련 서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 고전보다는 근현대 서적을, 문학의 대국보다는 압박받는 약소국민족의 서적을 읽으며 중국에 필요한 교훈을 찾고자 했다.

19) 魯迅作·竹内好訳(1992)『阿Q正伝·狂人日記 他十二篇(呐喊)』岩波文庫、pp.12-1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세키와 루쉰이 문학을 지향하게 된 계기는 다르지만 두 작가는 시대를 앞선 사상가이며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확고한 윤리적 태도를 견지(堅持)함으로써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작가는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근 현대 작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국민작가라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세키의 경우는 일본지폐 천엔(千円)권에 초상이 담길 정도로 일본인에게 친근한 작가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상을 통해서 두 작가의 성장과 문학입문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들이 활동한 시기는 거의 동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달랐다. 메이지유신 이후 활발하게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본과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의 상황은 극과 극이다. 따라서 두 작가의 작품의 주제와 성격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소세키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보인 맹목적인 서구추종과 일본적 정체성의 상실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소세키는 평소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유학을 하고 귀국과 함께 심각해진 신경증적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글쓰기에 착수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루쉰은 문학의 계몽성을 자각하여 국민계몽의 수단으로 문학을 지향했다. 일본 유학 당시 적극적으로 소세키의 작품을 읽었다. 그래서 소세키로부터의 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으며 루쉰의 작품에 소세키 문학의 방법이 나타났다고 추론한다. 소세키의 작품은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문명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루쉰은 근대화에 뒤쳐진 중국과 중국인의 전근대성을 비판하고 있다. 루쉰은 나태함과 우매함으로부터 중국 국민을 각성시켜 근대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몽성이 강하다. 루쉰의 작품이 지닌 특징은 『아Q정전』에서 보듯이 나태하고 우매한 중국인의 한 전형을 ‘정신승리법’이라는 풍자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

20) 소세키의 화폐초상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현재 천엔(千円)권에는 노구치 히테요(野口英世)의 초상이 담겨 있다.

### 3. 『도련님』과 『아Q정전』의 비교 분석

#### 3.1 문체의 특징 : 풍자 · 아이러니 · 해학

소세키의 『도련님』은 1주일 만에 완성된 작품이다. 당시 소세키는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이며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다. 처가가 몰락하여 가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때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제자인 다카하마 교시(高浜靡虚子)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사생문(写生文)을 써보라고 권유를 한다. 소세키는 마음속의 울분과 초조함을 ‘사생문’이라는 글쓰기로 해소했다. 그래서 소세키의 초기 작품은 치유로서의 글쓰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Q정전』은 2개월간 잡지 『신보(晨報)』에 연재된 작품이다. 나태하고 우매한 중국 국민을 고치지 않고서는 중국의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쓰게 된 작품이다. 루쉰의 글쓰기의 태도는 국민 계몽과 국민성 개조를 목표로 한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작가의 글쓰기의 목적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작가의 작품을 보면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해학, 풍자, 아이러니 등의 문체가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도련님』 제5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돈나든 서방님이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멋대로 세워놓든 말든 자기들 마음이겠지만,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도 모를 테니까 상관없다는 식이다.

マドンナだろうが、小旦那だろうが、おれの関係した事でないから、勝手に立たせるがよからうが、人に分らない事を言っ分らないから聞いたって構やしませんてえような風をする。<sup>21)</sup>

마돈나, 고단나는 일본어 발음이 비슷하다. 이것을 한국어 번역에서는 느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마돈나, 마누라로 변형시켰다. 여기서 소세키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이용하여 웃음이 나오게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말장난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1) 夏目漱石作(1992) 『坊っちゃん』 岩波文庫、p.49.

고루키라면 러시아 문학자 같은 이름이고, 마루키는 도쿄 시바의 사진사이고, 고메노 나루키는 생명의 은인이겠지.

ゴルキが露西亜の文学者で、丸木が芝の写真師で、米のなる木が命の親だろう。22)

위의 글은 도련님이 낚시를 권유 받아 멀리 바다로 나가 배안에서 듣게 되는 대화내용이다. 알랑쇠가 빨간 셔츠에게 맞장구를 치는 대화를 듣고 도련님이 생각하는 대목이다. 교감인 빨간 셔츠는 외국인의 이름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영심이 강한 인물이다. 그래서 러시아 작가 고리키를 거론하는데 정작 도련님은 고리키를 모른다. 그래서 고리키와 음이 비슷한 마루키(통나무)를 아무렇게나 붙여서 자신의 불만을 내뱉고 있는 대목이다.

또 빨간 셔츠가 종종 『제국문학(帝國文學)』<sup>23)</sup> 라는 잡지를 학교에 가져와 읽는 모습이 나온다. 도련님은 『제국문학』이 ‘죄 많은 잡지’라고 말하는데 이는 무분별하게 서양을 추종하는 것에 대한 풍자이다. 영어를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인이라 생각하는 피상적인 근대화를 소세키는 도련님을 통해 날카롭게 지적한다.

다음은 『도련님』 제7장에서 하숙집 여주인과 도련님의 대화이다.

“빨간 셔츠와 야마아라시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인가요?”

“야마아라시가 무엇입니까?”

“야마아라시는 핫타 선생을 말합니다.”

“그거야 강직하기는 핫타 씨가 강직해 보이지만, 빨간 셔츠 선생님은 학사니까 능력은 있지요, 그리고 상냥한 것도 빨간 셔츠 선생님이 더 상냥하지만, 학생들의 평판은 핫타 선생님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은 겁니까?”

“결국 월급을 많이 받는 쪽이 훌륭하겠지요.”

「赤シャツと山嵐たあ、どっちがいい人ですかね」 「山嵐て何ぞなもし」

「山嵐というのは堀田の事ですよ」

「そりゃ強い事は堀田さんの方が強そうじゃけれど、しかし赤シャツさんは学士さんじゃけれ、働らきはある方ぞな、もし。それから優しい事も赤シャツさんの方が優しいが、生徒の評判は堀田さんの方がええというぞなもし」

「つまりどっちがいいんですかね」

22)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51.

23) 『제국문학(帝國文學)』은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현 도쿄대학 문학부)과 관계된 교수와 학생 등이 만든 제국문학회의 기관지로 1895년에 창간 당시의 표지는 진홍색 바탕에 하얀 꽃으로 장식된 뗏목 무늬가 들어간 대담한 도안이였다.

「つまり月給の多い方が豪いのじゃろうがなもし」 24)

위의 대화를 보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련님은 사람의 품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여주인은 체격과 학력으로 대답함으로서 동문서답을 한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는 쪽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묘한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아이러니에 찬 풍자가 발생하고 해학적 효과를 거둔다.

다음은 『도련님』 제9장에 나오는 운율로 된 말장난 표현이다. 고가선생의 송별회에서 야마아라시는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군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하이칼라 따위가 한사람도 없는 곳”에 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다. 이에 대해 도련님이 야마아라시에게 불만을 말하는 대목이다.

“하이칼라 놈들, 험잡꾼, 사기꾼, 양의 탈을 쓴 늑대, 야바위꾼, 날다람쥐, 앞잡이, 멍멍 짓어대는 개새끼나 다름없는 놈이라고 하는 게 좋지.“

「ハイカラ野郎の、ペテン師の、イカサマ師の、猫被りの、香具師の、モモンガーの、罔々引きの、わんわん鳴けば犬も同然な奴とでもいうがいい」 25)

빨간 셔츠는 고가 선생의 약혼자 마돈나를 차지하기 위해 교장과 공모해서 고가선생을 규슈 미야자키 노베오카(延岡)라는 시골로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송별회를 열고 많은 교직원이 송별사를 한다. 야마아라시를 제외한 모든 교직원이 고가선생의 전근을 아쉬워하는 위선을 보인다. 도련님은 야마아라시의 송별사를 통쾌하게 생각했지만 더 강한 비난을 기대했기에 위와 같이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위의 글은 라쿠고(落語)를 흉내 낸 말장난으로 리듬감이 잘 살려져 있다.

다음은 『도련님』 제6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교감이라는 자가 문학사 주제에 아주 무기력하다. 험담을 할 때조차 공공연하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사내니까 줄장부임에 뻔하다. 줄장부는 친절한 법이니 빨간 셔츠도 여자처럼 친절한 사람일 것이다. 친절한 건 친절한 거고 목소리는 목소리니까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절한 것까지 헛되게 하는 것은 이치

24)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p.79-80.

25)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109.

에 맞지 않다. 그래도 세상은 이상한 것이다.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친절하고, 마음 맞는 친구가 나쁜 놈이라니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다. 시골이라서 도쿄와는 모든 게 반대인 모양이다. 뒤숭숭한 곳이다. 조만간 불이 난게 얼어붙고, 돌맹이가 두부가 될지도 모르겠다.

教頭なんて文学士のくせに意気地のないもんだ。陰口をきくのでさえ、公然と名前がいえない位な男だから、弱虫に極まってる。弱虫は親切なものだから、あの赤シャツも女のような親切ものなんだろう。親切は親切、声は声だから、声が気に入らないって、親切を無にしちゃ筋が違う。それにしても世の中は不思議なものだ、虫の好かない奴が親切で、気の合った友達が悪漢だなんて、人を馬鹿にしている。大方田舎だから万事東京のさかに行くだろう。物騒な所だ。今に火事が氷って、石が豆腐になるかも知れない。26)

위의 밑줄 친 부분은 다분히 해학적이며 아이러니에 찬 표현이다. “겁쟁이는 친절하다”라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친절하고, 마음 맞는 친구가 나쁜 놈”이라는 표현에서 웃음이 나온다. “불이 난게 얼어붙고, 돌맹이가 두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도련님의 해학적 문체 안에는 메이지 시대 인간들에 대한 관찰이 들어 있다.

도련님의 입을 통해 “시골이라서 도쿄와는 모든 게 반대인 모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전근대와 근대의 과도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혼란스런 모습이 느껴진다. 소세키는 도련님의 시선을 통해서 인간성과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도련님』에 나타난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아이러니에 찬 해학과 풍자를 살펴보았다. 이와 비슷한 예는 루쉰의 『아Q정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글은 『아Q정전』 제8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요 며칠 동안 성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가짜 양놈 한 사람뿐이었다. 자오 수재는 옷상자를 맡아준 은혜를 내세워 거인 영감을 찾아가고 싶었으나 변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지했다. 그래서 「최고의 격식」으로 쓴 편지를 성안으로 들어가는 가짜 양놈 편에 보내면서 자유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성안에 들어가서 돌아온 가짜 양놈은 은전 4냥을 수재에게 청구했고 그날부터 수재는 가슴에 은복숭아 휘장을 달고 다녔다. 이것을 보고 웨이쥡 사람들은 감동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그것은 시유당의 훈장이며, 한림학사와 다름없다고 소문을 냈다. 따라서 자오 영감은 갑자기 거만하게 굴면서 아들이 처음으로 과거 수재시험에 합

26) 夏目漱石(1992) 前掲書、p.58.

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으스스대면서 누구도 안중에 없다. 그러니 아Q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この数日間、城内へ行つたのはにせ毛唐だけである。趙秀才は、衣裳箱を預かってやった恩義をたてに、自分で挙人旦那を表敬訪問するつもりだったが、髪切り騒ぎがおこつたので中止した。そして「最高の格式」で書いた手紙を、城内へ行くにせ毛唐に託し、あわせて自由党に入党したいからよろしくと頼んだ。もどつて来たにせ毛唐は、銀四円を秀才に請求し、秀才は銀の桃を胸にぶらさげた。未荘のものは感服して、あれは柿油党のしるしだぞ、翰林に相当するんだぞ、と噂した。そのため趙旦那までが急にいばり出し、息子がはじめて秀才の試験に合格したとき以上のいばり方で、眼中なにももなく、阿Qの顔を見ても鼻もひっかけなかった。<sup>27)</sup>

위의 밑줄 친 글자 ‘자유당(自由党)’과 ‘시유당(柿油党)’은 『도련님』에 나오는 발음을 통한 말장난 ‘마돈나’와 ‘고단나’ 그리고 ‘고리키’와 ‘마루키’와 상통한다. 루쉰은 이 이름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골사람들은 자유당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시유당’이라고 말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헛소문이 꼬리를 물고 번져 갔다.”<sup>28)</sup> ‘시유’는 감을 으깨어 만든 주스 같은 음료로서 중국인이 즐겨먹는 흔한 음식이다. ‘자유’는 신해혁명기에 들어온 정치적 구호로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단어다. 사람들은 자유와 시유를 구분하지도 못한 채 덩달아 혁명에 가담했다. 이것은 신해혁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풍자를 담고 있으며 급소를 찌르는 대목이다. “민중들은 혁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sup>29)</sup> 혁명당의 구호는 ‘자유’였는데 시골 민중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시유’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만큼 시골의 민중들은 무지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혁명의 구호는 알아야한다. 모른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또한 인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신해혁명은 어리석고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또 다른 예로 『아Q정전』 제8장의 내용을 보자. 다음은 당시 중국의 부패한 관료들을 풍자한 대목이다.

27)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43.

28) 魯迅(1981) 『『阿Q正伝』の成因』、『魯迅全集』第三卷 人民文学出版社、p.379.

29) 魯迅(1979) 『呐喊』 人民出版社、pp.11-111.

첸영감 댁의 대문은 가끔 활짝 열려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간 아Q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마당 한가운데 가짜 양놈이 우뚝 서 있었는데, 온몸을 두르고 있는 검은 옷은 아마 양복인 듯했고, 가슴에는 은복숭아를 달고, 손에는 예전에 아Q를 때리던 기억이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자 남짓 자란 머리를 풀어서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봉두난발한 모양새가 마치 유해선인 같았다. 그 정면에 자오베이엔과 동네 건달 셋이 똑바로 서서 공손하게 가짜 양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錢家の表門はたまたまあけ放してあった。阿Qはおっかなびっくり足を入れた。はいってみてびっくり仰天、中庭のまん中になにせ毛唐がつっ立っている。上から下までまっ黒な、たぶんあれが洋服なんだろう、それを着用して、胸にやはり銀の桃をさげ、阿Qが身におぼえのあるステッキを手にしている。やっと一尺ばかり伸びた髪をほぐして肩に垂らしているの、ざんざん頭のぼさぼさ髪は、絵で見る劉海仙人にそっくりだ。その正面に、趙白眼と三人の遊び人が直立の姿勢で演説を拝聴していた。<sup>30)</sup>

위의 인용문은 가짜 양놈(にせ毛唐)이 자택 마당 한가운데에서 자유당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대목이다. 연설 중에 나오는 단어 ‘은복숭아’와 ‘유해선인’이란 단어에 풍자를 담고 있다. ‘은복숭아’는 자유당을 상징하는 배지이다. 모양은 길이 5cm, 폭 4cm, 외형은 복숭아와 비슷하다. 재질은 은(銀)이다. 정면에는 ‘중화자유당당원’ 일곱 자가 새겨져 있고, 지역에 따라서 디자인도 조금씩 달랐다.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sup>31)</sup> 여기서 작가는 혁명을 표상하는 고귀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대신 하찮은 과일에 불과한 ‘은복숭아’라고 말함으로써 자유당을 야유하고 있다. 또 다른 단어는 ‘유해선인(劉海仙人)’이다. ‘유해선인’은 당나라 말기 종남산(終南山)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당시의 중국(淸) 남자의 머리 스타일은 머리꼭지부터 두 갈래로 나누고 앞쪽 부분은 머리카락이 없으며 뒤쪽은 변발을 했다. 가짜 양놈은 이제 한 자(一尺) 남짓 자란 변발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봉두난발한 모양이 ‘유해선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청나라 말기의 관료들을 풍자하고 있다. 그들은 서양식 복장을 하고 두발은 청나라 변발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복장과 두발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다. 혁명은 기존의 것을

30)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44.

31) 邵建新(2010) 『自由党, 「柿油党」与「銀桃子」』江蘇南通平鄉高級中学, p.61.

타파(打破)하고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인데 혁명가들은 머리의 스타일이나 복장과 같은 표면적인 것을 바꾸는데 치중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중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해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구호로 그치고 말았음이 드러난다. 루쉰은 이를 작품 속에서 여러 풍자적 수단을 동원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쉰 또한 소세키처럼 해학적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아Q정전』 제4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떤 승리자가 이런 말을 했다. 상대가 호랑이나 독수리 정도는 되어야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상대가 양이나 닭처럼 약해빠진 상대는 반대로 이겨도 허무함을 느낀다고 한다. 또 어떤 승리자는 정복의 완성에 의해 죽을 사람은 죽고 항복할 사람은 항복하고 모두 “황송하옵게도 신(臣)은 실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식의 신하가 되어 더 이상 적도 경쟁자도 친구도 없이 홀로 우두커니 처량하게 자기만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승리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아Q는 결코 그런 겁쟁이가 아니다. 그는 영원히 득의만만했다. 이것은 어쩌면 중국의 정신문명이 전세계 으뜸이라는 증거인지도 모르겠다.

ある種の勝利者は、敵が虎や鷹であってはじめて勝利の喜びを感じるので、敵が羊や鶏のひなだと逆に勝利のむなしさを感じるそうだ。また、ある種の勝利者は、征服の完成によって、死ぬものは死に、降伏するものは降伏して、みんな「おそれ多くもお上に言上」式の臣下となり、もはや敵も競争者も友もなく、ひとり、ぼつねんと、さびしく、自分だけ上位に取り残されると勝利の悲哀を感じるそうだ。しかし、わが阿Qはそんな弱虫ではない。かれはいつだって意気軒昂である。これまた、中国の精神文明が世界に冠たる一証かもしれない。<sup>32)</sup>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화자는 “우리의 아Q는 결코 그런 겁쟁이가 아니다” “중국의 정신문명이야말로 전 세계 으뜸이다.”라고 시치미를 떤다. 독자는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대처를 해야 한다. 서양열강이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 중국에 위협을 했음에도 중국은 무력을 가지고 다가온 서양을 야만인이라고 오히려 무시했다. 이것은 아Q의 정신승리법과 닮아 있다. 이것이이야 말로 중국인의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풍자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축제날 투전판에서 아Q가 돈을 댄는데 순식간에 은화(銀貨)들이 어디

32)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16.

론가 사라져버린다. 아Q는 이 사태를 분하게 여기고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위안의 방법을 찾아내는 대목이다.

새하얗게 변적이던 은전 더미! 게다가 자기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아 들놈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도 기분이 째째했다. 나는 버러지라고 생각해보도 역시 째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만은 패배의 고통을 맛보았다.

그러나 아Q는 곧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힘껏 연거푸 때렸다. 얼얼한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후련했다. 때린 것은 자신이지만, 맞은 것은 자기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픈 것은 아직 아팠지만— 아Q는 흡족한 기분으로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누웠다. 그는 그렇게 푹 잠들었다.

まっ白な、キラキラ光る銀貨の山!しかも自分のものである銀貨の山---それがなくなった! 倅に持って行かれた、と考えてみてもおもしろくない。おれは虫けらなんだ、と言ってみても、やはりおもしろくない。今度ばかりは、かれは敗北のにかさを味った。

다가かれは、敗北をたちまち勝利に変えることができた。かれは右手をふりあげて、自分の横つつらを力いっばいつづけざまに殴った。飛びあがるように痛かった。다가殴ったあとは気がはれて、殴ったのは自分だが、殴られたのは別の自分のような気がした。そのうちに自分が他人を殴ったような気がして—痛いことはまだ痛かったが—かれは満足し、意気揚々と横になった。かれはぐっすり睡った。<sup>33)</sup>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울분이 풀리지 않자 아Q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고통을 맛본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으로 여겨질 만큼 철저하게 자기기만을 함으로써 패배가 승리로 바뀐 것이다. 아Q의 정신승리법은 이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것임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세키의 『도련님』과 루쉰의 『아Q정전』 두 작품에 나타난 문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두 작품 모두 아이러니와 해학에 찬 문체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세키와 루쉰 두 작가 모두 문체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보인다.

### 3.2 작품의 구성과 플롯

33)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p.109-110.

『도련님』과 『아Q정전』의 구성을 보면, 『도련님』은 11장으로 된 장편 소설이며 잡지 『호토토기스』에 발표되었다. 『아Q정전』은 9장<sup>34)</sup>으로 된 중편소설로 잡지 『신보(晨報)』에 연재되었다.

『도련님』은 ‘나(おれ)’가 서술하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도입부는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실명(實名)이 나오지 않고 유모 기요(清)가 부르는 호칭인 ‘도련님(坊っちゃん)’으로 나오며, 이것이 소설작품의 제목이 된다.

한편 『아Q정전』은 제삼자의 시선으로 서술되는 3인칭 시점 소설이며 화자는 아Q에 대한 기록을 쓰고자 하는데 아Q의 출신과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상세히 기술한다. 결국 아Q의 출신과 성명은 불분명해서 잠정적으로 붙인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련님’과 ‘아Q’ 모두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에 가까운 호칭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두 작품의 플롯을 사건 전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텍스트	『도련님』	『아Q정전』
프롤로그	(제1장)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제1장) *『아Q정전』의 기술방법으로서 ‘傳’ 설명 *아Q라는 인물의 성과 이름에 관한 설명. *아Q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Q로 정함. *아Q의 출생지에 대한 고증적 설명.
기	(제1장)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와 가정환경. *기요의 맹목적 사랑과 신뢰.  (제2장) *졸업, 시코쿠 중학 교사로 취직결정. *시코쿠행, 신바시역에서 기요와 이별.	(제2장) *아Q의 직업은 날품팔이 노동자. *가족과 집이 없다(마을사당에서 기거). *아Q는 자존심 강하다(정신승리법 고안.)  (제3장) *왕틸보 ‘아Q’가 자오씨 일족이라고 자랑. 자오나리한테 뺨맞고 혼나지만 정신승리법으로 해소. *왕틸보한테 매질을 당해도 정신승리법으로 해소.

34) 제1장 머리말 序/제2장 승리의 기록 優勝記略/제3장 승리의 기록(속편) 續優勝記略/제4장 연애의 비극(戀愛的悲劇)/제5장 생계문제 生計問題/제6장 중흥에서 말로까지(從中興到末路)/제7장 혁명(革命)/제8장 혁명 불허(不准革命)/제9장 대단원(大團圓)

		<p>*아Q가 축제 때 도박에서 이김. 소란이 일어나서 판돈이 사라져버림. 정신승리법으로 해소. 옆에서 이를 잡는 경쟁을 한다.</p>
승	<p>(제3장) *9월 학교개학, 수업 개시. *학생들과 갈등 (뒷조사. 탐정혐오.) *첫 숙직 날 밤, 메뚜기 사건 발생</p> <p>(제4장) *빨간 셔츠와 알랑쇠의 낚시 권유. 배타고 먼 바다(沖) 구경</p> <p>(제5장)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며 사색. (인간은 속물이며 자연은 고상하다)</p>	<p>(제4장) *장난삼아 비구니의 머리를 만져봄. (비구니를 만진 감촉 때문에 여자에 대한 충동이 생긴다.) *자오나리택 하녀인 과부 우어멈에게 접근했으나 실패. (우어멈 사건해결을 위해 자오나리택에 돈을 지불하고 실직.)</p> <p>(제5장) *샤오D 사건 발생 (아Q의 일자리를 샤오D가 차지함.) *일자리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서 성안에 간다.</p>
전	<p>(제6장) *낚시 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야마아라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짐.</p> <p>(제7장) *야마아라시가 지불한 빙수 값 반환.</p> <p>(제8장) *하숙 움김(몰락 사족 노부부 집).</p> <p>(제9장) *우라나리에 관한 소문 들음. *우라나리 송별회.</p> <p>(제10장) *축승회 참가, 학생들 분쟁에 휘말림.</p>	<p>(제6장) *아Q가 성내에서 돈을 벌어 웨이창에 돌아온다. 웨이창 사람들이 존경을 표한다. *아Q는 웨이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돈을 번다.</p> <p>(제7장) *웨이창에 혁명당이 왔다는 소문이 나돈다. 아Q는 혁명당에 가담하고자 결심한다. *가짜 양놈과 자오 수제가 당황해하며 혁명당에 가담하고자 아Q에게 부탁한다. *비구니 절에서 봉건사회의 표상인 「황제폐하 만세! 만만세!」라고 적힌 나무 위패와 선덕향로를 파괴함으로써 혁명이 완수됨.</p> <p>(제8장) *혁명당이 청나라 봉건제의 상징인 변발을 없애는 대신 머리를 막대로 말아서 안 보이게 함으로써 변발폐지를 대신한다. *아Q가 혁명당에 참가하고자 찾아왔으나 불허. *자오 나리택이 강도들에게 당한다.</p>

		(아Q는 이 소란 속에서 강도로 오인되어 감옥에 들어간다.)
결	(제11장) *빨간 셔츠 일당과 대립. *야마아라시 사표제출. *학교사퇴 귀경길에 오름.	(제9장) *아Q는 사형집행을 위한 법적절차에 따라 서명을 요구받는다. 글씨를 못쓴다고 하자 동그라미로 서명을 대신한다. 서명이 끝나고 총살 전 사형수의 의식인 조리돌림을 당하고 형장으로 향한다. (정신승리법으로 사태를 이해하고자 함.)
에필로그	(제11장) *기요와 자신에 대한 간결한 설명. 기요는 병들어 죽고, 자신은 가이테즈(街鐵)에 기사 취직함.	(제9장) *화자는 아Q가 죽은 이후의 사람들의 평판을 전해준다. 아Q가 총살당한 것은 아Q가 나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구경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노래 한곡도 제대로 못 부르는 얼빠진 인간이다. (중국인들의 사물관단의 수준을 풍자함.)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도련님』과 『아Q정전』은 도입부(프롤로그)와 종결부(에필로그)가 설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고는 내용의 흐름에 따라 두 작품을 기·승·전·결(起·承·轉·結)의 플롯구조로 도출해 보았다. 『도련님』의 도입부는 회상의 형식이다. 가정환경으로 시작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시코쿠에 교사로 부임하기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도련님은 일찍 양친과 사별하고 이후 형과도 결별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가족은 해체되고 혈연관계가 아닌 유모 기요가 가족을 대신하고 있다.

『아Q정전』의 도입부는 ‘아Q’ 라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전기를 쓰고 있는 화자의 긴 서술이다. ‘전기(傳記)’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기술방법에 대해 장황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중국 지식인의 명분과 허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아Q’역시 부모 형제가 없으며 고아처럼 살아온 인물이며 하층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두 작품의 주인공인 도련님과 아Q는 좌충우돌하면서 세상과 맞서고 있다. 도련님은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고집과 의리로 맞서고 있으며, 아Q는 모든 사태를 정신승리법으로 맞선다.

플롯 중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도련님』의 경우는 빨간 셔츠가 계획한 수순에 따라 축승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분류에 휘말리게 되는 부분이다. 여기

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야마아라시와 도련님은 빨간 셔츠 일당을 응징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야마아라시는 이미 면직된 상태였으며 도련님 또한 사표를 내고 섬을 떠나는 결말로 이어진다.

『아Q정전』의 전환점은 일자리를 잃은 아Q가 성내에 들어가 우연히 혁명당 패거리와 어울리게 되고 도둑질의 하수인이 되는 대목이다. 장물(贓物)을 들고 웨이쑹에 돌아온 그는 웨이쑹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실제 혁명당이 웨이쑹에 왔을 때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히게 된다. 아Q는 영문도 모른 채 총살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결국 『도련님』과 『아Q정전』의 주인공은 좌충우돌하다가 실패자가 된다는 점에서 희극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작품의 플롯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련님』과 『아Q정전』의 에필로그는 시간이 다소 흐른 시점에서의 기술이다. 『도련님』의 종결부는 도련님이 귀경 후 철도회사에 기사로 취직했으며 기요가 감기로 죽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전한다. 『아Q정전』의 종결부는 후기형식으로 서술되는데, 아Q가 죽은 이후 웨이쑹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었으며 아Q가 기억에서 사라졌음을 기술하는 것으로 맺는다.

### 3.3 등장인물의 유형

『도련님』의 인물유형은 선인과 악인이 명확히 구분되어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별명으로 나오거나 최소한의 성(姓)만 제시된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의리를 중시하는 담백한 유형과 처세에 능한 기회주의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도련님과 야마아라시(山嵐) 기요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빨간 셔츠(赤シャツ), 알랑쇠(野だ), 교장(たねき)을 한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아Q정전』에서 인물유형을 나눠보면 노동자 유형과 관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인물은 아Q(阿Q), 왕털보(王胡), 샤오D(小D), 우어멈(吳媽)과 추칠수(鄒七嫂) 등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관료유형은 자오나리(趙太爺), 자오수재(趙秀才), 가짜양놈(假洋鬼子), 지보(地保), 거인나리(舉人老爺), 자오백안(趙白眼)과 자오사신(趙司農) 등이다.

두 작품에 나오는 주요 인물을 유형별로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텍스트	『도련님』	『아Q정전』
의리형 인물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련님: 솔직하다, 무식하다, 단순하다, 덩벙대다, 신중하지 못하다, 대범하다. 정의감에 넘쳐서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li> <li>●야마아라시(山嵐): 직접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격이 급하다.</li> <li>●기요(清):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으로 도련님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Q(阿Q): 투박하고 우매하다. 교활하고 무뢰하다.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하다. 자기 경멸과 자기기만, 그리고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인물이다.</li> <li>●왕털보(王胡):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나약한 아Q와 같이 하위계층의 소인물 이지만 자신을 잘 보호할 줄 알고 있다.</li> <li>●샤오D(小D): 아Q보다 샤오D는 자신의 개성이 있고 개조성(改造性)도 지닌다. 국민의 각성을 불러일으킨 대표 인물로 그런 것이다.</li> <li>●우어멈(吳媽): 자오 나리 댁에 과부인 하녀이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물이다.</li> <li>●추칠수(鄒七嫂): 노예근성 사상과 신분관념에 깊숙이 빠져 있는 여성 인물이다. 권세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경외로 가득 찼다.</li> </ul>
기회주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빨간 셔츠(赤シャツ): 겉치레에 신경을 쓰는 사람. 교감이기까지 한 빨간 셔츠는 겉으로는 도련님을 위해주는 척, 신사인척 하지만 이간질을 하는 비겁한 인물이다. 위선적이다, 현식적인물이다.</li> <li>●알랑쇠(野だ): 미술교사인데 빨간 셔츠 옆에 붙어 언제나 아부를 떠는 인물이다.</li> <li>●너구리(たねき): 교장이다. 일본문학에서 교활한 이미지를 지닌다. 겉모습과 속이 다른 인물임을 표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오나리(趙太爺): 돈이 많고 권력도 있는 부자이다. 봉건사회의 대표자이다.</li> <li>●자오수재(趙秀才): 자오나리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처럼 웨이쑹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li> <li>●가짜 양놈(にせ毛唐): 웨이쑹의 전나리의 큰 아들이다. 이 인물의 출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사회와 시대적인 의미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li> <li>●지보(地保): 원래 지보는 청나라와 중화</li> </ul>

	<p>●마돈나(マドンナ): 우리나라의 약혼녀였는데 약혼자인 우리나라 선생을 버리고 교감에게 마음이 기울어 진다.</p>	<p>민국 초기에 지방에서 관부를 도와주고 잡무를 처리한 사람인데 월급이나 수고비가 없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지보는 상류계층과 하류계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맡는다.</p> <p>●거인나리(拳人老爺): 혁명이 일어났을 때 거인나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미장에 들어오며 이제껏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씨덕과 ‘면 친척’이 된다. 지극히 이기적인 추잡함과 바람에 따라 뜻을 다는 성격을 엿볼 수 있다.</p> <p>●자오백안(趙白眼)과 자오사신(趙司晨): 상류계층으로서 기회주의자이다. 이들이 자기의 주권이 없는데 눈치가 빠르다. 그리고 시세변화에 따라서 잘 살피고 잘 대처한다.</p>
중간 유형	<p>●우리나리(うらなり): 영어 교사이며 무기력하다. 작품 속에서 ‘성인군자’라 칭해지지만 풍자적 묘사이다.</p>	<p>중간 유형</p> <p>●비구니: 웨이장 비구니절의 젊은 비구니, 아Q는 비구니의 머리를 만져본 것이 계기가 되어 여자에 대한 충동이 생긴다.</p>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도련님과 같은 인물유형은 전통적 가치관에 향수를 느끼는 인물들로서 단순 솔직하며 의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근대 에도시대의 규범인 유교적 가치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메이지시대가 지향하는 실리주의적 가치관과는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같은 유형이지만 도련님은 끈기가 부족한 반면에 야마아라시는 매우 끈기가 있고 생각이 깊은 인물로 나온다. 제3장에서 도련님과 야마아라시가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해 기다릴 때 도련님은 쉽게 지쳐하는 반면 야마아라시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다만 교실을 막 나서려는 데 한 학생이, 이 문제 좀 풀어줄 수 없어요 하며 잘 풀릴 것 같지 않은 기하 문제를 내미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렸다. 하는 수 없이 나도 모르겠다. 이 다음에 가르쳐 주마하고 서둘러 교실은 나왔더니 학생들이 와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중에는 못해, 못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등신들 같으

니라고, 선생도 모르는 게 있는 건 당연하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면 40엔을 받고 이런 촌구석에 올 리가 없지 하고 생각하며 교무실로 돌아왔다.

ただ帰りがけに生徒の一人がちよつとこの問題を解釈をしてくれんかな、もし、と出来そうもない幾何の問題を持って逼ったには冷汗を流した。仕方がないから何だか分からない、この次教えてやると急いで引き揚げたら、生徒がわあと囁した。その中に出来ん出来んという声が聞える。篋棒め、先生だって、出来ないのは当たり前だ。出来ないのを出来ないというのに不思議があるもんか。そんなものが出来る位なら四十円でこんな田舎へくるもんかと控所へ帰って来た。35)

야마아라시는 학교에서 해고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이는 비겁한 두 인물 ‘빨간 셔츠’와 ‘알랑쇠’를 응징하여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처음에 야마아라시를 경계하던 도련님도 점차 야마아라시에게 감화되어간다. 야마아라시는 학생들에게 가장 신망있는 교사로 나오는데 그만큼 정의롭고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세키는 정의의 편으로 도련님과 야마아라시, 우리나라를 내세운다. 학생들은 잘못된 근대 학제로 인해 인성교육 보다는 술수를 배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세키는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德目)으로 솔직함과 순수성을 꼽는 듯하다.

한편 근대적 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은 서양의 합리주의(合理主義)의 물질주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의미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생겨난 것이 기회주의적인 빨간 셔츠와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다. 메이지 시대는 빨간 셔츠와 같은 유형이 승리할 것임을 소세키는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의 비극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위의 학생과 교사의 실랑이는 소설을 재미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도련님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도련님은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리고 덤병대며 시골에 대한 편견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이러한 도련님의 모습은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도련님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조금씩 인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도련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야마아라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핫타 선생이다. 이 인물 또한

35)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p.27-28.

도련님과 더불어 소세키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도련님보다는 사려가 깊고 지혜롭다. 도련님은 야마아라시를 통해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법, 즉흥적인 감정을 자제하는 법을 배운다.

도련님은 결국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세키가 창출한 ‘도련님’이라는 인물은 시종일관하여 솔직하고 정의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시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소세키는 이와 같은 인물에 대해 향수를 느끼지만 메이지 근대사회를 살아가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음을 본다.

다음은 『아Q정전』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건달들은 끈질기게 그치지 않고 끝내는 서로 주먹질까지 했다. 물론 아Q가 졌다. 건달들은 윤기가 없는 아Q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담벼락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박고는 겨우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아Q는 잠시 우두커니 서서 생각했다. ‘자식 놈에게 맞은 셈이군. 정말이지 말세라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아Q는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무심코 나중에는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이런 ‘정신승리법’을 아Q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자, 그의 윤기가 없는 머리카락을 움켜잡을 때 사전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아Q, 이건 자식 놈이 아버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자, 자 스스로 말해 봐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라고.’ 아Q는 양손으로 자기의 머리카락 뿌리를 움켜잡고 고개를 비틀며 소리쳤다. ‘버러지를 때린다고 하는 건 어떠냐? 나는 버러지다 --- 이제 놓아 줘!’

ところが遊び人連中は、しつこくからんで、とうとう殴り合いになった。形式上は阿Qの負けになる。色つやのわるい辮髪をつかまれ、土堀にコツコツ頭をぶつけられる。それでやっと相手は満足して、意気揚々と引きあげる。阿Qはしばらく立ったまま考える。《倅にやられたようなものだ。ちかごろ世の中がへんで……》そしてかれも満足して、意気揚々と引きあげる。

阿Qは、心に思ったことを、ついあとで口に出してしまう。そのためこの精神的勝利法の存在が、阿Qをからかう連中のあいだに知れわたった。それからは、色つやのわるいかれの辮髪を引っばるとき、事前にこう通告するようになった。

《阿Q、これは倅が親を殴るんじゃないぞ。人間さまが畜生を殴るんだぞ。自分で言ってみろ、人間さまが畜生を殴るんだと》阿Qは、両手で辮髪の根元をおさえ、首をねじ曲げる。《虫けらを殴るんさ。これでいいだろ?おいら、虫けらさ---もう放してくれ!》<sup>36)</sup>

도련님의 성격처럼 아Q의 성격 또한 자기 싫어하는 유형이다. 이런 아Q의 태도를 작가는 ‘정신 승리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Q는 자기를 위안할 수 있다. 심지어 사형장을 향하면서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때로는 머리가 잘려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지(人として生まれた以上、たまには首をちょん切られることだって、ないわけではない)<sup>37)</sup>”라고 정신승리법으로 자기 위안을 한다. 이것은 아Q라는 인물 속에 중국인의 속성을 구현(俱現)한 것이다. 중국인은 힘든 일이 생기면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고 만다. 그래서 중국인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미개한 상태로 머물게 되고 마침내 서구열강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 것이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 상하이인 열강의 식민지가 되기에 이른다.

『도련님』과 『아Q정전』 두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보았다. 두 유형은 일대일로 들어맞지는 않지만 희극적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련님은 물리학교를 나온 중학교 교사로서 지식계급에 속한다. 이에 비해 아Q는 근본도 알 수 없는 하층 노동자 계급이다. 그래서 무모한 성격의 표출 방법이 도련님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작가 루쉰은 아Q의 무모한 성격 안에 중국인의 무지몽매하고 나태한 국민성을 담아 계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련님의 경우는 작가 소세키의 개인적 상황이 표출되었다고 본다.

『도련님』의 빨간 셔츠는 별명처럼 걸치레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빨간 셔츠는 걸으로는 도련님을 위해 주는 신사인 척 하지만 이간질을 하는 비겁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유형은 당시 근대화과정의 일본에서 많이 출현했으며, 이에 대한 소세키의 냉소적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도련님이 시코쿠 중학교에 부임하여 교감인 빨간 셔츠와 대면하는 모습이다.

인사를 한 사람 중에 교감인 아무개가 있었다. 이 사람은 문학사라고 한다. 문학사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묘하게 여자처럼 나

36)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07.

37)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53.

곳나곳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가장 놀란 것은 이렇게 무더운 날인데도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간 천이 얇은 건 틀림없다고 해도 더울 게 뻔하다. 문학사인 만큼 번거롭기 짝이 없는 복장을 한 것이다. 게다가 빨간 셔츠니까 사람들을 깔보고 있다. 나중에 들으니 이 남자는 1년 내내 빨간 셔츠를 입는다고 한다. 별난 병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 설명에 따르면 빨간색은 몸에 좋아 위생상 일부러 맞춰 입는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왕 그럴 바엔 기모노나 하카마도 빨간색으로 하면 된다.

挨拶をしたうちに教頭のなにがしというのがいた。これは文学士だそうだ。文学士といえば大学の卒業生だからえらい人なんだろう。妙に女のような優しい声を出す人だった。尤も驚いたのはこの暑いのにフランネルの襯衣を着ている。いくら薄い地には相違なくとも暑いには極ってる。文学士だけに御苦労千万な服装をしたもんだ。しかもそれが赤シャツだから人を馬鹿にしている。あとから聞いたらこの男は年が年中赤シャツを着るんだそうだ。妙な病気があった者だ。当人の説明では身体に薬になるから、衛生のためにわざわざ誂らえるんだそうだが、入らざる心配だ。そんならついでに着物も袴も赤にすればいい。38)

교감인 빨간 셔츠에 대한 묘사는 재미를 더하기 위한 과장이 많다. 목소리를 여자처럼 묘사함으로써 남성다움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시대 남성들이 지닌 무사적 씩씩함이 사라져가는 메이지 시대를 한탄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유형에는 알랑쇠도 포함된다. 알랑쇠는 미술 교사인데 빨간 셔츠 옆에 붙어 다니며 아부를 일삼는 인물이다. 이 또한 메이지 시대가 출현시킨 인물이라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도련님이 숙직하던 날 학생들과 소동을 벌인 끝에 학생처분 관련 회의에서 알랑쇠가 상급자들에게 아첨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방금 교장 및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실로 핵심을 찌른 아주 적절하신 의견으로, 저는 철두철미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알랑쇠가 하는 말은 있지만 뜻이 없다. 한자를 연달아 늘어놓았을 뿐 뜻은 알 수 없다. 알아들은 것은 철두철미 찬성한다는 말뿐이다.

「それでただ今校長及び教頭の御述べになった御説は、実に肯綮に中った剗切な御考えて私は徹頭徹尾賛成致します。どうかなるべく寛大の御処分を仰ぎたいと思います」といった。野だのいう事は言語はあるが意味がない、漢語をのべつに陳列するぎりで訳が分からない。分ったのは徹頭徹尾賛成致しますという言葉だけだ。39)

38)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p.22-23.

위에서 보듯이 소세키는 근대 학교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보인다. 소신이 없는 교사와 무례한 학생들을 양산하는 것이 근대의 학교라고 비판한다. 인성을 키우기 보다는 처세와 책략(策略)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다음은 도련님이 교사로 부임해서 임명장을 받는 날의 모습이다.

교장 선생님은 수업이 듣성듣성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이 커다란 너구리 같은 남자였다. 무척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일해 달라고 말하면서 커다란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정중하게 내밀었다. 이 임명장은 도쿄로 돌아갈 때 구겨서 바다에 던져버렸다.

校長は薄髯のある、色の黒い、眼の大きな狸のような男である。やに勿体ぶっていた。まあ精出して勉強してくれとって、恭しく大きな印の捺った、辞令を渡した。この辞令は東京へ帰るとき丸めて海の中へ抛り込んでしまった。<sup>40)</sup>

너구리는 교장의 별명이다. 너구리는 일본의 전승(伝承)에서 교활한 이미지를 지닌 동물이다. 그래서 교장에게 너구리와 같은 이미지를 담았다고 생각된다. 작품에서 교장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게 나온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교장 너구리는 허례허식을 일삼는 형식주의자의 표본이며 의미 없는 미사려구를 늘어놓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다음은 『아Q정전』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Q, 극악무도한 놈아! 네가 나하고 한집안 사람이라며 너란 놈이 떠벌리고 다녔나?” 아Q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오 영감은 더욱 울화가 치미는지 몇 발짝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네 놈이 잘도 영터리 같은 소리를 함부로 지껄여! 내가 어떻게 네 놈과 한집안이란 말이냐! 네놈 성이 자오라도 되어야?”

아Q는 입을 꼭 다문 채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러자 자오 영감이 달려들어 그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중략) 그래서 나도 결국 아Q의 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阿Q、この極悪人め!おれとおまえが一族だなどおまえ言ったのか?》阿Qは口をきかなかつ

39)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68.

40)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21.

た。

趙旦那はますますいきり立って、二、三歩つめよった。《よくもでたらめを!おれに、おまえみたいな親類が、あつたまるか。おまえの姓が趙だと?》

阿Qは口をきかずに、あとへ引こうとした。趙旦那は飛びかかって、平手打ちを食わせた。(中略)で、私にも阿Qの姓が何であるか結局わからずじまいのである。41)

자오 나리는 웨이좡에서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돈도 많고 학식도 있다. 그런 자오 나리를 아Q는 자신의 친족이라고 말함으로써 도전한 것이다. 자오 나리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의 자식이 수재라는 벼슬에 오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날품팔이 노동자이며 출신도 이름도 모르는 자가 친족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자 분노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셈이다. 중국은 과거제도가 있어서 시험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다. 어쩌면 아Q의 노동력은 자오 나리 집안에서는 매우 중요했을 수도 있다. 아Q는 필요할 때 쌀도 쪼고, 배의 노를 젓기도 하고, 허드레 일을 도맡아 했으며 일을 하는데 아주 유능하다는 평판이 나 있다. 그럼에도 아Q는 자오 나리에게 뺨을 얻어맞고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아Q정전』 제8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서양 선생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 한창 얘기하는 데 열중하느라 아Q를 보지 못했다.

“나는 성미가 급해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여형 바로 합시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양반은 ‘노(No)!’라고 말한다. 이걸 서양 말이라 자네들은 몰라요.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성공했을 터이다. 무엇보다 그만큼 신중해서 그러는 거야. 그는 나한테 몇 번이고 후베이(湖北)로 가달라고 말했다. 이런 작은 작은 동네에서 일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아직 거절했어……”

西洋先生は、かれに気がつかなかった。視線を空に向けて、いまも演説に油が乗っている最中だから。

《わが輩は気が短いから、会うたびにこう申した—黎君、立ちあがろう! その度に相手はノウと言う。ノウ—これは外国語であるから、諸君にはわからん。そうでなければ、とっくに成功しとったはずである。もともと、それだけかれは用心ぶかいんじゃな。かれは再三再四、わが輩に

41)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02.

湖北へ来てくれと申すが、わが輩はまだウンと言わんのだ。こんな小さな県城で仕事をしたいとは思わんが……》42)

가짜 양놈은 웨이창의 대지주인 첸(錢)나리의 큰아들이다. “가짜 양놈은 성안에 있는 서양 학교에 들어가더니 무슨 까닭인지 다시 동양의 섬나라로 달음박질해갔다.”43) 라고 나온다. 동양의 섬나라는 일본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의 개화된 지식인들은 일찍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루쉰도 그중 한사람이다. 그밖에 량치차오(梁啓超)44) 장빙린(章炳麟) 등이 아편전쟁 이후의 중국의 위기를 느끼고 일본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첸나리의 큰 아들은 일본에 유학을 했으나 본질은 배우지 않고 변발을 자른 모습으로 돌아온 인물로서 당시 중국 유학생들의 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반년 뒤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짜 변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서양을 배척해서 변발을 자른 사람에 대해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Q는 그를 ‘가짜 양놈’이라고 불렀다. ‘양코 배기 앞잡이’라고도 불렀다. 가짜 양놈은 아Q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다. 아Q는 당시 무지몽매한 중국인의 표본이다. 아Q가 가짜 양놈을 미워하는 것은 중국인의 배타주의를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짜 양놈은 일본의 서양식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항상 ‘NO’라는 영어를 쓰면서 허영심을 보인다. 그리고 가짜 양놈은 아Q가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가짜 양놈이 아Q가 모반하는 걸 불허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제8장 ‘혁명 불허’에서 나타났다. 근대를 받아들인 중국인들은 국가라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머물렀다. 가짜 양놈은 일본에서 피상적인 근대를 배우고 돌아와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껏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도 의기투합하여 동지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가

42)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p.144-145.

43) 루쉰 지음・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2016) 『루쉰전집 9 집외집 집외집습유』 그린비, pp.118-119.

44) 량치차오(梁啓超)((1873~1929):중국 청말 중화민국 초의 계몽 사상가이자 문학가이다. 번역, 신문·잡지의 발행, 정치학교의 개설 등 혁신운동을 했으며 변법자강운동에 힘쓰기도 했다. 계몽적인 잡지를 발간해 신사상을 소개하고 애국주의를 고취해 중국 개화에 공헌했다.

짜 양놈은 루쉰이 만들어 낸 풍자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아Q정전』 제7장 ‘혁명’에 나오는 대목이다.

자오 수재는 혁명당이 지난밤에 성안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재빨리 듣고, 땅은 머리를 머리 위로 틀어 올리고, 아침 일찍 친하게 지내지도 않던 첸 영감네 가짜 양놈을 찾아갔다. (중략)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비구니가 정신을 차려보니, 위패는 박살이 나 아래에 떨어져 있을 뿐 아니고 관음상 앞에 놓여 있던 선덕향로도 온데간데없었다.

趙秀才は早耳で、革命党が前夜入城したことを知り、さっそく辮髪を頭の上に巻きあげ、朝はやく、ふだん往来のない銭毛唐を表敬訪問した。(中略) ふたりが帰ったあとで、尼さんが気をとりなおして調べてみると、竜牌が砕けて下に落ちているばかりでなく、観音像に供えてあった宣徳ものの香炉も消えうせていた。<sup>45)</sup>

자오 수재는 자오 나리의 아들이다. 당시에는 입신출세를 해야 행세를 하는데 그 관문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오 수재는 어렸을 때부터 봉건 교육을 받고 가문의 권위를 지켜야 하기에 과거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 집안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다. 자오 수재는 전근대적 권위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자오 수재의 성품은 교활하게 나온다. 원래 혁명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아버지가 봉건 관료였기 때문에 봉건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을 우려했다. 그러나 혁명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혁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오 수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가짜양놈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 세대와 자식의 세대는 가치관의 변화가 보이고 있음을 본다. 자오 수재는 혁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기에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정수암(靜修庵)에 가서 봉건사회의 상징물인 선덕향로를 가지고 나와 혁명당에게 가지고 감으로써 선수를 친다. 자오 수재는 혁명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단지 도구로 삼아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오 수재는 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시 부패 관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45)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p.140-141.

다음은 『아Q정전』 제4장 ‘연애의 비극’의 내용인데 아Q가 우어멈에게 구혼하다가 쫓겨나는 사건이 있는 후에 지보가 나타난 장면이다.

“아Q, 이 개자식아! 자오 나리 맥 하녀를 건드리다니, 아주 반역을 저질렀군. 그 덕분에 나까지 잠도 못 자게 생겼어. 이 개 자식아!……”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만 계속 되풀이하는 동안 물론 아Q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결국 아Q는 지보에게 술값 팁으로 평소의 곱절인 4백문을 쥐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아Q의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털모자를 저장잡히고 다섯 가지 약속을 해야 했다——

《阿Q、この野郎! 趙家の女中にまで手を出しやがって、謀反でもんだぞ。お蔭でおれまで夜も寝られやしねえ。こん畜生!……》

なんのかんの小言の百万べんである。むろん阿Qは一言もない。最後に、夜だから地保への心付けは倍の四百とられた。現ナマがないので毛織りの帽子を抵当にした。そして五項目を取り決めた——46)

원래 지보(地保)라는 직책은 청나라와 중화민국 초기에 지방에서 관부를 도와주고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며 월급이나 수고비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지보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는 자신의 담당 구역의 부자에 빌붙어 아무 힘이 없는 하층민들을 착취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특히 작품에서 아Q를 끊임없이 수탈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지보 역시 부패관료의 유형이며 약자를 수탈하는 중국 말단관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국 근대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한 봉건 계층 제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련님』과 『아Q정전』의 인물 유형들을 알아보았다. 『도련님』은 격변기를 맞고 있는 근대 일본사회에서 생겨난 새로운 인물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인공 도련님처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Q정전』을 통해서는 중국의 당시의 봉건 사회의 암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매하고 무지하며, 나태한 민중들의 계몽을 위하여 아Q라는 모델을 제시하여 중국인이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엄태인은 “『아Q정전』의 아Q뿐만

46)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p.121-122.

아니라 루쉰의 초기소설은 거의 모두가 봉건중국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하여 작중인물을 죽음으로 연결시켜 독자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고 있다.”<sup>47)</sup> 라고 말한다.

### 3.4 작품의 모티프 비교 : 여성관 · 직업관 · 신체담론

『도련님』과 『아Q정전』 두 작품 안에는 여러 소재가 들어있다. 이에 대해 여성관 · 직업관 · 신체담론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텍스트	『도련님』	『아Q정전』
여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요 편파적이고 감정적이다.</li> <li>● 마돈나 이해타산이 빠르고 경박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칠수 여자는 질투가 많다.</li> <li>● 우어멈 소문을 좋아하고 수다스럽다.</li> </ul>
직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에 대한 비하. (여인숙 · 하숙집주인 · 골동품장수)</li> <li>● 근대학제 하의 교사 비판. (인성교육보다 처세술과 책략 가르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들은 무능하고 탐욕스럽다.</li> <li>● 노동자는 무지하다.</li> </ul>
신체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골사람은 피부가 검다. (야만)</li> <li>● 시골사람은 체격이 크다. (무식)</li> <li>● 얼굴형과 목소리는 성격을 나타낸다.</li> <li>● 피부가 흰 남자는 큰일을 못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스럽이 난 아Q와 털보. (흉터와 털이 놀림의 대상)</li> <li>● 비구니의 매끈한 피부. (성적 대상)</li> </ul>

첫 번째, 두 작품을 비교하여 여성관을 살펴본다.

다음은 유모 기요가 도련님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도련님』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기요는 내가 장래에 출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면 서도 공부를 하는 형은 얼굴만 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라고 혼자 단정해 버렸다. 이런 할멈이고 보니 당해낼 수가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몰락할 거라 믿고 있다.

清はおれを以て将来立身出世して立派なものになると思ひ込んでいた。そのくせ勉強をする兄は色ばかり白くて、とても役には立たないと一人できめてしまった。こんな婆さんに逢っては叶わな

47) 엄태인(1998) 『阿Q正伝의 人物로 통해 본 魯迅의 文学世界』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p.36.

い。自分の好きなものは必ずえらい人物になって、嫌なひとはきつと落ち振れるものと信じている。48)

기요는 도련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한다. 그래서 도련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게 보이고 맹목적으로 신뢰한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 형은 남자답지 못해서 큰 인물이 못될 거라고 판단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몰락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편견이다. 기요의 도련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맹신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에 대한 판단 역시 근거가 없다. 여기서 소세키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데, 소세키는 기요를 통해 여성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며 편견에 차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련님』 제1장에서 도련님이 시코쿠에 가기 위해 도쿄를 떠날 때 기요에게 선물로 “무엇을 좋아해”라고 물었을 때 기요의 대답을 “조릿대 잎으로 짠 에치고의 사탕이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대화에도 기요라는 여성은 사족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한 여성임이 드러난다. 소세키가 설정한 여성인물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하거나 교양이 없다.

『아Q정전』의 경우도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질투가 많고 소문을 좋아하고 수다스럽게 나온다. 다음은 제4장의 내용이다.

그때 젊은 마님이 우어멈의 손을 잡고 말하면서 하녀 방에서 나왔다. “어서 나오게……자기, 자기 방에 숨기는 왜 숨나……” “자네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네. 그러니 허튼 생각은 하지 말게.” 추칠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우어멈은 연신 울먹이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そのとき若奥さまが、呉媽の手を引いて、話しかけながら女中部屋から出てきた。《こっちへ来るんだよ……なにも、自分の部屋に引っこもって……》

《あんたがそんな女じゃないこと、みんな知ってるよ……短気なんか、おこすんじゃないよ》 鄒七嫂も、そばから口をはさむ。

48)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12.

呉媽は泣くばかりで、何か言うが聞き取れない。49)

위의 대화는 아Q가 우어멈에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후 추칠수와 우어멈이 서로 나누는 대화이다. 그런데 우어멈의 태도는 자기의 감정에 도취되어 과장적이다. 물론 그 당시 여성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과부라고 해도 여성은 남성의 접근을 금기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우어멈은 아Q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다. 여기에 응수하는 추칠수의 태도는 더욱 심하다. 마치 우어멈이 자살이라도 하려한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한다. 루쉰은 이 안에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고 있다. 그것은 여성은 사태를 침소봉대하고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여자들은 소문과 수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루쉰의 편견적 여성관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우어멈이 나오는데 아Q는 한 눈에 우어멈을 알아보는데 우어멈은 아Q는 보지도 않고 병사의 등에 걸친 철폭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여성의 무신경과 아Q의 비극이 아이러니하게 드러난다.

두 번째, 직업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도련님』 제4장의 내용이다.

학교에서는 숙직이 있어서 교원이 교대로 맡고 있다. 단 너구리와 빨간 셔츠는 예외다. 왜 이 두 사람만 당연한 의무를 면제받느냐고 물었더니 주임관 대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 기분이 좀 나빴다. 월급은 많이 받지, 시간은 적게 맡지, 그런데 숙직까지 면제받는다니,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던 말인가. (중략) 야마아라시는 ‘Might is right(힘이 정의다)’라는 영문을 인용하여 나를 일깨우려 했지만 요령부득이기에 다시 물었더니 ‘강자의 권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学校には宿直があって、職員が代る代るこれをつとめる。但し狸と赤シャツは例外である。何でこの兩人が当然の義務を免かれるのかと聞いて見たら、奏任待遇だからという。面白くもない。月給は沢山とる、時間は少ない、それで宿直を逃がれるなんて不公平があるものか。(中略) 山嵐は‘might is right’という英語を引いて説論を加えたが、何だか要領を得ないから、聞き返して見たら強者の権利という意味だそう  
だ。50)

49)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21.

50)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35.

당시 학교는 숙직제도가 있는데 교원이 교대하면서 맡고 있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은 제외였다. 도련님은 이에 불만을 말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일하는 시간도 적고 숙직까지도 면제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마야라시는 그것은 ‘강자의 권리’라고 해석하는데 재미를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교장과 교감의 숙직 면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작품은 근대 학제하의 교사라는 직업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근대 학제에서 교사는 각각 세분화된 과목을 가르친다. 따라서 교육은 전인교육이 될 수 없다. 또 교사는 가르치는 것 자체보다는 개인의 출세와 보수의 증액 등 교육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빨간 셔츠는 도련님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자기편을 만들려고 회유한다. 우리나라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가 오히려 멀리 좌천된다. 금전으로 좌지우지하는 타락한 교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또 다른 직업관으로는 상업에 대한 비하가 보인다. 소세키는 사농공상이라는 에도시대의 신분제의 위계를 작품 속에 드러낸다. 여인숙 미나토야의 여급에 대한 묘사와 몰락한 사족 노부부가 하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냉소적이다.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에 대해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는 자본주의 제도가 유입되고 산업이 장려됨으로써 성립되는데 소세키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Q정전』에서는 청나라 말기의 관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인다. 작품 속에는 관료의 횡포가 많이 나온다.

다음은 제1장의 내용이다.

자오 영감은 더욱 울화가 치미는지 몇 발짝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네 놈이 잘도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함부로 지껄여! 내가 어떻게 네 놈과 한집안이란 말이나! 네놈 성이 자오라도 되어야?” 아Q는 입을 꼭 다문 채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러자 자오 영감이 달려들어 그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네놈 성이 어떻게 자오란 말이나! 너 같은 놈의 성이 자오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다!” 아Q는 자기 성이 자오라고 항변하지도 못했다.

趙旦那はますますいきり立って、二、三歩つめよった。「よくもでたらめを!おれに、おまえみた

いな親類が、あつてたまるか。おまえの姓が趙だと?」阿Qは口をきかずに、あとへ引こうとした。趙旦那は飛びかかって、平手打ちを食わせた。「おまえが趙であつてたまるか! 趙などと、とんでもない話だ!」阿Qは、自分の姓がたしかに趙だとは抗弁しなかった。51)

이것은 봉건관료가 자신의 가문을 특별하다고 과대평가하는 대목이다. 아Q 같은 날품팔이 노동자가 감히 일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호통치고 때리고 있다. 당시 중국 사회 관료들의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말해준다. 자오나리는 웨이쑹 마을의 권세가로서 아Q를 포함하여 웨이쑹의 모든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중국은 봉건사회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관료들의 시선이 도처에 나온다.

세 번째는 두 작품을 비교하여 신체담론을 분석해 본다.

다음은 『도련님』 제3장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촌놈들에게 일단 약점을 보이면 버릇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 큰 목소리로 약간 허 꼬부라진 말투로 수업을 진행했다.

しかしこんな田舎者に弱身を見せると癖になると思ったから、なるべく大きな声をして、少々巻き舌で講釈してやった。52)

위의 내용은 도련님이 교단에 서서 수업하는 모습이다. 도련님이 수업하는 첫날에 학생들이 우렁찬 소리로 선생님, 하고 부르자, 이에 반응하는 대목이다. 큰 소리를 내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도련님은 생각한다. “촌놈들에게 약점을 잡히면 버릇이 된다” 면서 시골에 대한 편견도 보이는데 작품에서 시골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얼굴색도 검다면서 피부색과 체격이 문명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다음은 『아Q정전』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Q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 있는 부스럼이다. 부스럼 때문에 아Q의 머리는 군데 군데머리카락이 비어 있다.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은 반짝반짝 광채가 난다. 그래서 아Q는

51)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102.

52) 夏目漱石作(1992) 前掲書、p.27.

자신의 부스럼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Q는 옛날에는 잘살았고, 아는 것도 많고, 게다가 일도 잘하는, 전혀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지만, 예통하게도 체질적으로 조그만 결함이 있었다.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머리가 전염 피부병의 흔적으로 대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자신의 육체의 일부임에 틀림없지만, 자기 몸에 난 부스럼 자국만은 아무리 콧대 높은 아Q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는 ‘대머리’라는 말, 이와 비슷한 일체의 발음이 이것과 비슷한 말은 무조건 싫어했고, 점점 범위를 넓혀 ‘빛나다’나 ‘밝다’라는 말도 꺼리더니, 나중에는 ‘램프’나 ‘촛불’이라는 말도 질색했다.

阿Qはむかしは偉かったし、見聞は広いし、しかも働きがいいから、ほんとは、完全人間のはずだが、惜しいかな体質的にやや欠点があった。最大の悩みの種は、頭に数カ所、いつからともなく、疥癬のあとが禿げになっていることである。これだって自分の肉体の一部にはちがいないが、こればかりはさすがの阿Qも自慢にはならぬらしく、その証拠に「禿げ」ということは、および一切の発音がそれに近いことをきらった。その範囲がだんだんひろがって、のちに「光る」も禁句、「明るい」も禁句になった。もっと後になると「ランプ」や「蠟燭」まで禁句になった。53)

위의 내용은 아Q의 부스럼이 난 머리에 대한 설명이다. 웨이창의 사람들은 아Q의 흉터를 가지고 놀렸다. 이렇게 놀림감이 되면서 아Q의 신경은 날카로워진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부와 머리에 부스럼이 난 경우가 흔했다. 영양실조와 불결함 때문에 생긴 부스럼을 소재로 하여 등장인물의 열등감의 원천으로 삼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왕털보라는 노동자도 나온다. 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왕털보’로 불리며 놀림의 대상이 된다. 왕털보는 이를 잡으며 아Q와 경쟁을 한다. 루쉰은 신체적 약점이나 특이한 용모를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 정수암의 비구니의 피부를 만져본 것이 발단이 되어 아Q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잠을 못 이루는 대목이 나온다. 여성의 매끈 매끈한 피부는 성적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후 우어멈에게 접근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물론 이것이 아Q의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만다.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웨이창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내에 가서 혁명당과 연루된다. 여성과의 신체접촉은 아Q의 불행의 단초가 되고 있다.

53) 魯迅作・竹内好訳(1992) 前掲書、pp.106-107.

## 4. 결론

지금까지 소세키의 『도련님』과 루쉰의 『아Q정전』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작품 비교분석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두 작가의 경력과 문학입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세키와 루쉰은 유학을 다녀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세키는 근대 산업도시 런던을 체험하고 루쉰은 동양의 서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도쿄를 체험했다. 본고는 두 작가 모두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국민작가라는 위상을 지녔음에 주목했다.

『도련님』과 『아Q정전』이라는 작품제목은 주인공의 호칭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정확한 이름이 아니다. 이 또한 유사점이 있어서 다루게 되었다. 두 작품은 이처럼 공통점과 함께 다른 점도 보이는데, 이는 두 작가가 처한 국가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으며 민족성 등 여러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일본과 중국의 문화는 동일한 한자·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어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일본은 당시 근대화에 성공했고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식민지적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입지의 차이는 작품 속에서 상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련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도 보고, 비난도 받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지만 담백하다. 소세키는 이러한 도련님의 품성에 대해 향수를 느끼고 있다.

한편 루쉰의 소설은 중국 현대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데, 그 이유에 대해 엄태인은 “내용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예술 기법상에서 탁월하며 작품구성이 풍자적이고 간결하여 문학적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up>54)</sup>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정신은 지식인의 책무 중 하나이다. 문학가는 지식인으로서 깨어있는 비판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세키와 루쉰은 지신인의 소명의식에 철두철미했으며 그만큼 사회비판정신이 강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세키와 루쉰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답게 자신이 처한 시대상황 속에서 예리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루쉰은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국민의식을 개혁하

54) 엄태인(1998) 前掲書, pp.39-40.

자는 계몽성을 작품 속에 담았다. 이것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세키와 루쉰은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한 사실주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세키와 루쉰에 대한 높은 평가는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탁월성을 지녔으며, ‘도련님’과 ‘아Q’라는 인물의 전형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두 작가의 글쓰기의 태도와 작품의 문체, 플롯, 주제, 인물의 성격 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문체에서 해학과 풍자가 두드러졌다. 플롯의 경우는 플로로그 · 기승전결 · 에필로그의 구성되었다고 고찰했다. 두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도련님』은 의리형과 기회주의형, 『아Q정전』은 노동자 유형과 부패 관료형으로 분류했다.

작품 안에는 여러 모티프가 들어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관 직업관 신체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두 작가의 비판정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소세키의 비판정신은 서구문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메이지시대에 대한 문명비판으로 드러났다. 루쉰의 경우는 청조 말기의 중국 관료의 부패상과 함께 중국인의 무지몽매를 일깨우고자하는 계몽성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 [한국문헌]

#### 1. 단행본

- 권혁건(2004) 『나쓰메 소세키와 한국』 제이앤씨출판사
- \_\_\_\_\_ (2001) 『나쓰메 소세키 文学研究』 제이앤씨출판사
- 나쓰메 소세키 지음 · 송태욱 옮김(2016) 『도련님』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2) 현암사
- 루쉰 지음 · 북트랜스 옮김(2015) 『아Q정전』 더난콘텐츠그룹 북로드
- \_\_\_\_\_ · 김시준 옮김(2008) 『루쉰소설전집』 을유세계문학전집 12 을유문화사
- \_\_\_\_\_ ·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2016) 『루쉰전집 9 집외집 집외집습유』 그린비
- 시엔끼에비즈 외저 · 최건영 엮음 · 만남 옮김(1987) 『폴란드문학의 세계』 남명문화사
- 유세중(2009) 『루쉰식 혁명과 근대 중국』 한신대학교출판부

#### 2. 논문

- 엄태인(1998) 『阿Q正伝의 人物로 통해 본 魯迅의 文学世界』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 왕단단(2017) 「 루쉰의 『아Q정전』 연구 」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전수진·이경규(2017)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노신(魯迅)의 근대문화 수용에 대한 의식 비교」 『일본근대문학연구』 5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3. 사전류

-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편(1987)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11 동아출판사.

## [일본문헌]

- 磯田光一編(1986) 『漱石文芸論集』 岩波書店  
鈴木修次(1987) 『中国文学と日本文学』 東京書籍  
夏目漱石作(1972) 『夏目漱石全集』 10 筑摩全集類聚版 筑摩書房  
\_\_\_\_\_ (1992) 『坊っちゃん』 岩波文庫  
中島健蔵 他2人 編 『比較文学 -目的と意義-』 比較文学講座 I 清水弘文堂  
古川久編(1982) 『夏目漱石辞典』 東京堂出版  
魯迅作・竹内好訳(1992) 『阿Q正伝・狂人日記 他十二篇(呐喊)』 岩波文庫  
早稲田大学比較文学研究室編(1970) 『比較文学-方法と課題-』 早稲田大学出版部

## [중국문헌]

### 1. 단행본

- 杜云南·熊沛軍(2016) 『魯迅与夏目漱石的理解』 湖南文理学院  
林少華 訳(2013) 『哥儿(坊っちゃん)』 中国宇航出版社  
魯迅(1934) 『南腔北調集·我怎么做起小説来』 人民文学出版社  
\_\_\_\_\_ (1979) 『呐喊』 人民出版社  
\_\_\_\_\_ (1981) 『『阿Q正伝』의 成因』 『魯迅全集』 第三卷 人民文学出版社  
\_\_\_\_\_ (2005) 『阿Q正伝』 魯迅全集 第一卷 人民文学出版社

### 2. 논문

- 杜云南·熊沛軍(2016) 「魯迅与夏目漱石的理解」 湖南文理学院  
盧洪濤(2002) 魯迅 『野草』 与夏目漱石 『十夜夢』 比較論 咸陽师范学院学报  
婁胜平(2005) 『阿Q 国人 劣根性』 華中科技大学  
孫放遠(2012) 「魯迅与夏目漱石」 吉林大学出版  
楊明(2011) 『跨越国界的精神鏈接』-試論魯迅 『阿Q正伝』 与夏目漱石的 『哥儿』  
邢台学院学报  
李元亮(2002) 『魯迅与夏目漱石』 淮坊学院

- 張芮宁(2002) 『异国学子的海外生活』 -比較魯迅与夏目漱石的留学經歷- 上海交通大学
- 邵建新(2010) 『自由党, 「柿油党」与「銀桃子」』 江蘇南通平鄉高級中学
- 胡毓文(1997) 『魯迅与夏目漱石』 世界文学杂志社
- 婁胜平(2005) 『阿Q 国人 劣根性』 華中科技大学

<Abstract>

**A Comparative Literary Analysis of Natsume Soseki and Lu Xun  
- “Botchan” and “Ah Q Zhengzhan”**

**YIN YU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Nan-hee Kim**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Botchan” (Master Darling) by Natsume Soseki and “Ah Q Zhengzhan” (The True Story of Ah Q) by Lu Xun. Prior to analyzing the works, the literary careers of the writers and how they started literary practice were reviewed.

One common experience of the writers is that they had studied overseas. Natsume Soseki stayed in the industrialized modern city of London for a while, and Lu Xun had a chance to study in Tokyo, an Asian ‘western’ city at the time. Although the titles, “Botchan” and “Ah Q Zhengzhan”, originated from character names, neither of them refers to the precise name of the characters. This makes another commonality between the literary works.

Though similarly presented, the works contain different aspects, which ar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such as the different conditions of their countries and the different nationalities. The master, the character from “Botchan”, often suffer loss, reproach and neglect, but he calmly responds to the

obstacles he faces. It is deemed that Natsume Soseki feels nostalgic about the master's personality. Lu Xun reflected the need for enlightenment in his book as he believed that it was urgent to reform the public consciousness.

Natsume and Lu were realistic novelists who observed reality cool-headedly. The two writers have been highly appreciated as their works are outstanding not just in their contents but also in their formats.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Botchan” and “Ah Q Zhengzhan”,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authors' literary attitudes, styles of writing, plots, themes,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characters. It is noteworthy that satires and humors were commonly found in the styles of the two books. The books were also structured similarly, beginning with a prologue and ending with an epilogue, with the main storyline organized with an ‘introduction’, a ‘development’, a ‘turn’ and a ‘conclusion’. In terms of the character types, the characters from “Botchan” are either ‘loyal’ or ‘opportunist’, while those from “Ah Q Zhengzhan” can be divided into ‘proletarians’ or ‘corrupt bureaucrats’.

Several motifs were discovered in the works, which were reviewed in this paper with discourses on the writers' views of womanhood and careers as well as with their bodily discourses.

After the above analysis and review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two writers expressed their criticism in their works. Natsume took a critical stance toward the Meiji era when people received the western culture unconditionally, while Lu depicted the corrupt bureaucrats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enlightening the Chinese public in the late Qing Dynasty.